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작품 : 김선옥 스텔라스티카 (좌동성당 · 부산가톨릭미술인회)

연중 제12주일

제1독서 예레미야서 20,10~13

화답송 시편 69(68),8~10,14와 17.33~35 (© 14ㄷ 참조)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1.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2.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3. 가난한 이들과,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과. ◎

제2독서 로마서 5,12~15

복음 환호송 요한 15,26.27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복음 마태오 10,26~33

영성체송 시편 145(144),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 냅니다

자갈치 아줌마들의 억척스러운 삶의 현장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판에 말린 생선들과 고등어를 손질하는 아줌마들, 고생한 세월로 이쁜 손이 거칠고 까칠한 손으로 바뀌고 억척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장사가 낯설고 두렵지만 삶의 현장에 뛰어 들 수 있었던 것도 엄마의 사랑, 엄마의 강한 힘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난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고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 낼 수 있는 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도 부담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마저 듭니다. 거기다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선포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때는 더욱더 고민스럽습니다.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신다”는 말처럼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그 자체가 복음 선포의 큰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더라도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며, 가장 큰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곧 육신을 죽이는 박해자들에게 대한 두려움을 지옥에서 영혼과 육신을 다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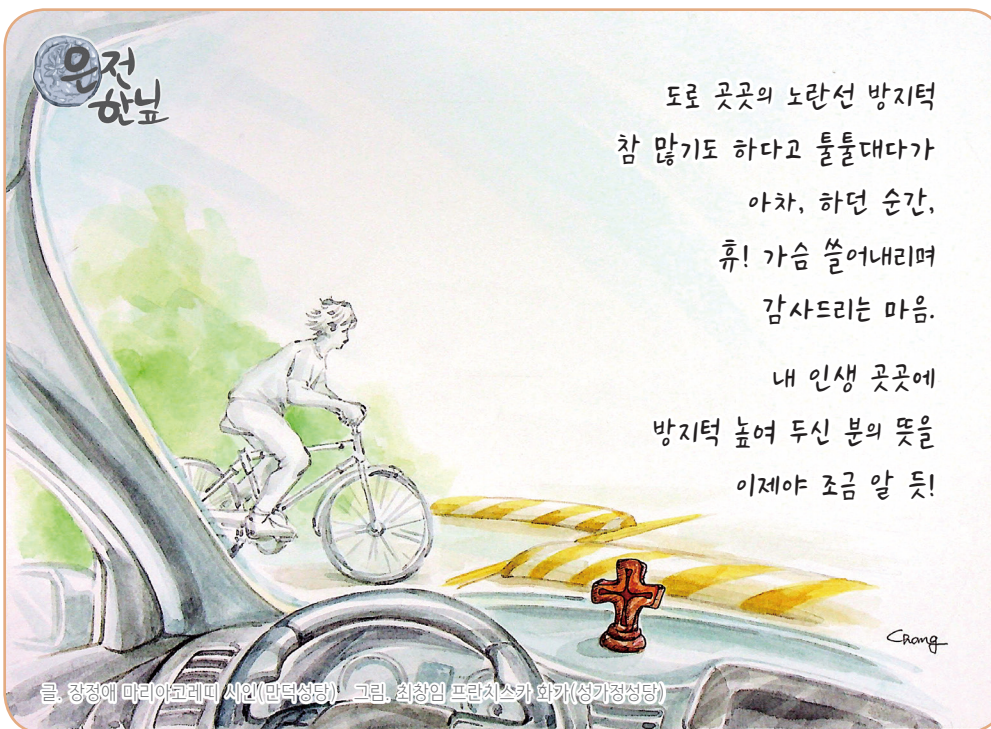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순교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부어 주시어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박해가 따를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생명이 하느님 안에 있고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힘도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신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김성한
안드레아 신부
양산성당 주임



도로 곳곳의 노란선 방지턱
참 많기도 하다고 툭툭대다가
아차, 하던 순간,
휴! 가슴 쓸어내리며
감사드리는 마음.

내 인생 곳곳에
방지턱 높여 두신 분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 듯!

글. 장경애 마리아요리대 시인(만덕성당) /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6.22(월)~23(화)
김성한 신부(양산성당 주임)
6.24(수)~27(토)
강호성 신부(온천성당 보좌)

중계소 이설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후원 모금

ARS 060-700-7004
(한 통화 10,000원)

부산은행 041-01-029607-2
농협 917-01-175333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유튜브 주일미사 지향 받습니다
문의 : (051)600-8800

우리는 많은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죽는 때를 알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한 다든가 혹은 갑작스럽게 착한 일을 한 후 죽으면 으레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랬구나” 하든지 아니면 “그래, 죽을 준비를 하였구나” 하고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수년 동안의 냉담을 푸시고 그동안 밀린 교무금도 내시고 당시 귀하던 공동번역 성경을 사 오셔서 첫 장인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장인 요한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책 아래에 굵고 큼직하게 페이지를 직접 쓰셨습니다. 마지막 미사를 드리시고 일주일 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그 성경을 가보로 삼아 가족이 모여 공동으로 기도를 바칠 때마다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

신의 죽음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순간순간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이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죽음은 그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언제 나의 생명의 문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저와 가까웠던 이들의 죽음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가 고민합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라고 믿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해 설날 저녁에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다행히 기도의 힘으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원해서는 주치의가 가족들을 면담하며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꽤유할 수 있었음은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80일간 입원하며 그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숨쉬고 자고 일어나는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이 죽음과 부활을 되풀이하는 기적입니다.

■ 민 훈 기 가브리엘

석포성당 · 시인

mgabriel0929@hanmail.net



가정의 달? 지구공동체의 달!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한 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날들이 많이 들어차 있기에서 서로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이 가득한 가정의 달로써 채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번 달은 지구공동체의 달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공동의 집인 지구에는 가정공동체도 있고, 동네도 있고, 농촌과 도시도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생각하게 되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 바오로

2020년 6월 21일

바오로, 내 지난주 미사 갔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다.

바오로

뭐?

미사 재개되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감염에 취약한 분들은

꼭 성당에 안 나와도 되고, 대송 바치면 된다 했는데,

근데, 미사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더라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미사 참석률이 코로나 전의 50%밖에 안된다는데..

바오로

지난번 연휴라 캠핑장 갔는데, 거기는 사람들로 꽉 찼더라.

시장이나 대형마트도 미어터지고

코로나가 성당에만 있나, 성당은 안 오고, 만데 놀러는 가고.

바오로

그러게, 주일에 미사 드리는 습관을 다시 가지기가 쉽지 않을 거야,

신경 써서 주변 신자들 좀 챙겨야겠다.

안젤로하고 베드로도 지난주 안 보이제?

바오로

안 보이던데, 요셉이도 안 보이고.

내일 싹 다 잡으러 가자.

바오로

ㅇㅋ 다 죽었쓰



빈민사목에서 운영하는 빛둘레 나눔가게를 소개합니다. 2008년 8월 11일 반송에 문을 연 빛둘레 나눔가게는 지역사회에 천주교를 알리고 물품 재활용과 친환경 생활을 지향하며 이웃들과 친교를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당 40곳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해놓고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등 물품들을 우리 가게로 모아 깨끗이 정리해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눔가게를 운영한 지도 어언 10년이 넘어 그동안 아름답고 훈훈한 기억들이 가게 구석구석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6년 전 영도 청학성당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신 교우님은 끊임없이 주위 분들께 홍보도 해주시고 지금도 의류 소품들을 택배로 보내주시고, 어느 분은 대구에서도 택배로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도 우리 가게를 잊지 않고 기부도 하시고 필요한 물품을 사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인가 냄비, 주전자, 그릇 등을 배낭에 잔뜩 지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찾아오셔서 힘은 들었지만 기쁘다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중앙성당의 교우님, 마음을 모아서 기부해주신 양정성당 레지오 단원님들, 코로나19 재난기금을 기부를 해주신 은인들, 이런 아름다운 분들 덕분에 나눔가게가 더욱 빛이 납니다.

아쉬운 점은 본당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서 보내오는 의류 중에는 너무 낡고 해진 것들이 많아 가려내고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당의 의류 수거함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눔이 되도록 눈높이를 높여 주세요.

또한 차량 봉사자가 부족해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봉사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해주세요.

하루를 마감하는 장부에 적자의 숫자를 써 내려갈 때가 허다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열두광주리 가득 남았던 것처럼 아름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는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 빛둘레 나눔가게의 행복 장부는 항상 흑자입니다.

장 옥 선 마리아

빛둘레 나눔가게 점장, 반송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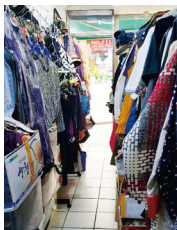
▶ 차량봉사 문의 : 467-1045, 010-2886-6467

▶ 나눔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시는 것은 최고의 기부입니다.

- 물품 : 깨끗한 의류, 운동화, 가방, 새 그릇 등

-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46-2

▶ 빈민사목 후원회 미사 : 매월 둘째 월요일 10:30 문현성당



2020년 직수여 미사



[명단] 김성중 베드로(하단), 이승우 안토니오(삼랑진), 장병훈 루카(괴정), 조현우 블라시오(우정), 이상경 베드로(남산)

지난 6월 13일(토)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2020년 직수여 미사'가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이날 우리 교구 신학생 5명이 시종직을 받았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6월 14일(일) 감사미사 봉헌
주임 : 김효근 신부, 회장 : 김석태 바실리오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노력하는 신자들...

- 방역, 야외고해소 설치, 바코드 신자 확인 등



동래



주례



못골



명지



6월 14일(일) 감사미사 봉헌 및 엘리베이터 축복식
주임 : 김평겸 신부, 회장 : 박재일 아우구스티노

본당 분과위원장 연수



교육분과위원장 연수 : 6월 13일(토)
구역분과위원장 연수 : 6월 14일(일)
선교사목국(국장 : 이장환 신부) 주관

2020년 짧은 묵상 시 공모전 성황리에 마감

전산홍보국에서 주관한 '짧은 묵상 시 공모전'이 지난 5월 31일(일)을 끝으로 마감되었다. 약 2개월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29명의 440여 편이 출품되었고, 당선에는 정원도 요셉(좌동), 우수에는 손덕화 마틸다(울하), 장서윤 그라시아(아미청소녀), 가작에는 신경숙 테레사(신선), 김동섭 바오로(용호), 김해찬 안드레아(무거-청소녀) 씨가 각각 수상했다. 입선자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가톨릭부산』 주보 '은전한닢' 코너를 비롯한 주보 콘텐츠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짧은 묵상 시 공모전 감상평>

짧은 시 형식임에도 우리 신자들이 일상에서 정말 진솔하고 깊은 신앙 체험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 고맙고 기뻐합니다.

선정되지 못한 분들의 글도 주제나 길이 등의 문제일 뿐 신앙에 대한 평가가 아님을 알려드리고, 주제나 길이 등 형식적인 부분을 잘 지켜주신다면 다음 공모전에서는 더 많은 분들의 글이 주보를 통해 소개되고 공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6월 9일~6월 15일]

소계 : 5,538,700

남천3구역4반 100,000	달맞이성당홍보분과 200,000	안락성당 1,277,000	양산성당성서40주간 210,000	중앙성당복사단 200,000
이종순 50,000	임숙희 100,000	이영실 50,000	안영애 100,000	김성진 200,000
김혜영 20,000	강연희 30,000	소정희 100,000	강재선 50,000	전익추 100,000
손혜옥 30,000	정창민 50,000	석은숙 50,000	고경민 50,000	이갑선 100,000
이정옥 100,000	박수교 100,000	권수자 30,000	우복순 100,000	김현경 50,000
정연희 30,000	정영재 300,000	하미경 100,000	이상원 50,000	익명 20,000
익명 10,000	정규식 50,000	임미란 21,700	조일배 50,000	박순자 30,000
권축송 1,000,000	김대성 200,000	전필자 50,000	우성윤 30,000	김수영 100,000
차윤지 50,000				

누계 : 715,187,790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매년 6월은 한국 천주교회 구성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달이며, 특별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매년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9일 기도**
- 6월 17일(수)~6월 25일(목)
 - 미사 전·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함께 봉헌 (가톨릭 기도서 109면 / 매일미사 191면)

[지 향]

- 6월 17일(수)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화심을 위하여
- 6월 18일(목) - 북한과 미국,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 6월 19일(금) -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 6월 20일(토) - 경제재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6월 21일(일) -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 6월 22일(월) -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 6월 23일(화) -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 6월 24일(수) -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 6월 25일(목) -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주제 공모

한국 교회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희년 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 방법 :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접수
- 응모 기간 : 6월 1일(월)~7월 24일(금)
- 당선작 발표 : 2020년 8월 중순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
- ※ 위 일정은 주교회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당선되신 분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교황님 축복장과 소정의 상품을 증정함.
- ▶ 문의 : cbck2021@cbck.kr (희년사업준비팀)
-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http://www.catholicbusan.or.kr>

<p>(주)씨피여행사 가톨릭센터 1층 247-5858</p>	<p>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식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88.100.110. 등 MK80-마스타30M 폼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폼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폼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답사(상담환영)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p>	<p>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오두중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중(요한) 805-0200 카톡상담 ID : 오두중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태화 맞은편 우리은행 5층</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p>	<p>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p>
<p>한울타리노인복지센터 찾아가는 목욕차량 서비스(방문목욕, 방문요양) 노인성 질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국비지원 85~100% 이부자 (카타리나) 문의사항 상담환영 257-8120, 010-9832-1211</p>	<p>항스퀘어병원 대장항문수술, 위대장내시경, 종합검진 환 찬 규 (요셉) 장림역 2번출구 715-4242</p>	<p>바름내과의원 소화기/간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건강보험공단 지정검진기관 내과전문의 2명 문제현, 박기태(베드로) 지하철역 온천장역 1번 출구 150m 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p>	<p>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서비스 참기쁜방문요양센터 -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분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관련 질환) 안 선 자 (카리타스) 무료상담 757-2707</p>	<p>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구석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의 이 상 열(베드로) 516-0888</p>

교 구

혼인미사 경비 지원

대상 : 부산가정성당에서 결혼 희망 커플 중 재정적 어려움 있거나 사유 있는 커플
 지원 : 90만원~340만원
 기한 : 2020년 연말까지 (혼인미사 기준)
 문의 : 441-3500(부산가정성당)

기관·제 단체·위원회

시각장애인선교회(큰빛) 후원회 미사

· 6.22(월) 12:00 · 선교회 3층 성전
 문의 : 464-3909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 6.25(목) 14:00 가톨릭센터
 주례 : 정한시 신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성당), 박종석 신부(해군중앙성당)
 울산 : 7.3(금) 10:00 옥동성당
 주례 : 박근혁 신부(공군군수사 광성대성당)
 문의 : 751-3610, (052)274-3608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6.25(목) 19:00 / 문의 : 441-6403
 · 노동사목센터 교육실(사상성당 옆)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1. 6. 22. 박만춘(아우구스티노) 신부님
 2008. 6. 25. 박문선(야고보) 신부님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 6.26(금) 10:00 (세계오지선교회 차량지원)
 · 현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가톨릭서예인회 제11회 정기전(부채전)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 6.29(월)~7.5(일) ·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문의 : 010-8542-3559(회장)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7층(14평, 16평, 20평, 51평)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또는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교육·모집·기타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문의 : 010-3355-4997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왕복항공 예약가능 / 개인피정가능)
 · 7.5~8(추자도), 7.19~21, 7.25~28(우도), 8.1~4(우도), 8.6~9(우도)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입학설명회 : 7.4(토) 14:00
 여름진학캠프 : 8.7(금)~9(일)
 대상 : 초6, 중1, 2 / 문의 : (054)338-0530

평화계곡피정의집 7월 향심피정

대상 :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선착순 10명)
 · 7.3~5, 7.11~12, 7.14~16, 7.18~19, 7.20~22, 7.25~26 / 문의 : 010-3422-7587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7.3~5, 7.27~29, 7.31~8.2
 대상 : 개인, 가족, 본당단체 등(1인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문의 : (064)796-9181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피정

· 8.5(수)~9(일) · 서울 베네딕도회 피정의집
 지도 : 허성준 신부, 이경희 수녀
 회비 : 36만원(36명/1인실)
 문의 : 010-4731-2468(최안나)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 매주 토 14:00~일 14:00 / 내용 : 유덕현 아빠스와 함께 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수도회
 문의 : 010-2816-1986

제주성지순례 모집

· 7.24~26, 7.28~30, 8.7~9, 8.24~26
 · 제주성지 7곳(상지해설)
 지도 : 안성철 신부(바오로수도회)
 문의 : (064)805-9890(가톨릭사회경제연합)

청년들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토익, 회화(영어, 중국어, 일어 등), 취업 스테디, 컴퓨터 활용, 운동(축구, 당구, 탁구, 헬스, 요가 등), 취미(밴드, 드론, 등산, 캘리그라피 등)

■ 신청방법

메일 접수 (hongbo@catb.kr)
 (본당, 성명, 세례명, 주소, 연락처, 분야)

■ 문의 051-629-8752

<p>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p> <p>2021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원서 접수 안내</p> <p>기간 : 7월 20일(월)~7월 24일(금) 모집학과 :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p> <p>문의 : 051-510-0702~4 www.cup.ac.kr / ipsi.cup.ac.kr</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결과</p> <p>만성폐쇄성폐질환 3년 연속 1등급 획득 마취 적정성 평가 1차 평가 1등급 획득</p> <p>부산성모병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안전한 마취를 시행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p> <p>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p>	<p>가톨릭선원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p> <p>가톨릭센터 교육실</p> <p>▶ 110석, 60석, 30석 등 4개의 교실 운영교육실 ▶ 교육 및 세미나, 워크샵 가능(음향, 영상 시설 겸비)</p> <p>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i>(가톨릭센터 교육실 및 대청 갤러리)</i></p> <p>▶ 60평 규모의 전시 전문 공간 ▶ 평면, 입체, 사진 등 다양한 전시 가능 <i>대관신청 즉시 접수</i></p> <p>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p>
--	---	---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p> <p>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수맥과 건강</p> <p>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해도 효과를 못보시는 분, 문의 환영</p> <p>사무실 517-3233 서순복(말바나) 010-3862-6834</p>	<p>동의료원 무료관절센터</p> <p>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p> <p>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p>	<p>SM수맥홀춤대 거실 향토소파</p> <p>평화방송, 신문광고 중 후보 차임 교우 우대 1588-5335</p>	<p>마음과마음심리상담연구소</p> <p>*양육비 이행관리원 면접교섭상담위원 * 개인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성격검사, 진로 및 공부방법 기타</p> <p>지하철 1호선 님개역 4번 출구 20m 앞 심한 1상가 206호 441-1145</p>
<p>눈시원안과 이현석(분도) 전. 국토보건성모안과 공동원장 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631-6622 상공회의소 옆 이샘병원 3층</p>	<p>성요셉의 집 입소상담 (055) 365-1910</p> <p>원장. 김희정(리오바) 장기요양등급 1~5등급(1인실~4인실 선택가능) www.st-joseph.co.kr</p>	<p>재활전문 수요양병원</p> <p>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공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p>	<p>국내 성지순례</p> <p>7/18(토), 7/25(토) 전주교구 4곳 초남이, 김제성지, 숲정이, 전주목터</p> <p>참가비 5만원 미래고속관광 우중환(리차드) 010-3720-0303</p>	<p>독일보청기</p> <p>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글라라)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도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p>